

고규홍의 ‘나무생각’



사라진 전설과 인문학, 그리고 나무

나무에 담긴 ‘사람살이’의 향기를 찾으려면, 나무와 더불어 그 곁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을 만나야 한다. 경북 상주의 사백년 된 소나무를 찾았을 때도 그랬다. 처음 나무를 찾아가서 팔손 녀은 노인에게 나무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을 들었다. 이 소나무에 얽힌 전설은, 나뭇가지를 꺾는다가나 줄기 꺾질을 벗겨 내는 식으로 나무에 해코지를 하면 큰 벌을 받는다거나, 나무 안에 천년 묵은 이무기가 살고 있으니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그동안 알고 있던 흔한 전설과는 사뭇 달랐다.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솔잎을 주워 가기만 해도 천벌을 받는데, 그것도 삼대에 이어진다는 조금은 살벌한 전설이다. 곰곰 훑아보면 매우 슬기로운 자연주의적 지혜가 담긴 전설임을 알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침내 나무에 좋은 거름이 될 솔잎을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천벌이 삼대에 이어진다는 것도 그렇다. 자신이 받을 천벌 정도는 각오하고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게 가난하던 시절 우리네 부모의 남루하지만 고귀한 삶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로 자식들이 대를 이어 천벌을 받게 할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끊임없이 순환하

는 자연을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혜로운 뜻을 담은 전설이다. 몇 해쯤 지난 뒤에 다시 이 소나무를 찾았다. 고작 이태쯤 지난 뒤였지만, 마을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나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노인의 허름한 집은 근사한 양옥으로 바뀌었고, 마을 회관도 새 단장을 했다. 그리고 조근조근 전설을 이야기하던 노인은 그새 세상을 떠났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래된 나무에 얽힌 사람살이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당연히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분을 찾아야 한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죽음이 가까운 분들이다. 이 마을에서처럼 처음에 나무 곁에서 나무 이야기를 전해 준 노인을 다음에 찾았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경우는 자주 겪게 되는 일이다. 노인의 부고를 씩씩히 되새기며 나무 곁에 서면 나무는 돌아가신 노인의 분신으로 다가온다. 가만히 나무 곁에 머무르면 나무줄기에서 노인의 다정다감한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사람은 떠나도 나무는 남아 사람의 향기와 무늬를 그대로 전해준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다. 상주의 그 작은 마을에서 나무의 전설

을 마을 어른들로부터 전해 듣고 싶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전설을 또렷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나마 한 노인이 겨우 어디서 들은 듯하다는 식의 답을 내놓았을 뿐이다. 전설이 사라졌다. 선조의 지혜에 대해 그토록 감탄하게 했던 전설이 그렇게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전설과 함께 나무 안에 담겨 오래도록 전해 온 삶의 가치도, 사람살이의 향기도, 나무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살이의 무늬도 더불어 희미해졌다. “신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짚어 보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질서를 정당화하고 공고하게 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비교신화학자 조지프 캠벨(1904~1987)의 말이다. 신화란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 실현해야 할 삶의 가치를 담고 인구에 회자한 이야기, 즉 사람살이의 진정한 가치를 담은 이야기라는 말이다. 신화와 전설을 잃어 가는 이 시대에 재우쳐 나무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옛 사람살이의 자취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을 노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이 살아온

사람살이의 무늬를 살려 내야 한다. 더구나 우리 삶의 가치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옛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삶의 가치, 사람살이의 무늬를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문학적 자산이며, 지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문학적 과제다. 신화와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사람살이가 살아 있는 삶의 현상이 인문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최근의 인문학 열풍이 격정스러운 것은 과연 사람살이에 얼마나 다가서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다. 현장의 삶에서 떨어진 지식 유희 혹은 언어유희에 치우친 책과 강연이 넘쳐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라는 말이다. 인문학은 이 땅의 사람들이 남긴 삶의 무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말로만 되는 삶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달리 말하자면 언어유희로 인문학 과제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다. 사람 곁에서 사람과 더불어 천년을 사는 나무는 사람살이의 무늬를 담은 대표적인 자연물이다. 지금 나무 곁에 봄바람이 스민다. 나무에 다가가 나무가 전해 주는 옛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나무 칼럼니스트>

社說

지방선거, 정책 없이 ‘정치 공방’만 해서야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광주·전남에서는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정치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후보들은 이에 대한 해법이 나 대안 제시보다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후보들 간 공방이 계속되고, 당원 간 고소·고발로 법정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 방송국이 진행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는 7명의 후보 중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양항자 최고위원 등 3명이 불참했다고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격려 발언’으로 후보 간 공방을 촉발한 이전 부위원장은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당내 정치 정책 토론회에는 불참해 일부 후보의 공격을 받고 있다. 후보 간 경쟁이 과열로 치닫자 민주당은 조기 공천과 결선 투표 등 다양한 공천 방법을

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장 원로 고문들도 “시민을 위한 정책 선거를 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가하면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상당수 후보들은 정책 개발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만을 내세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른바 ‘문신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을 비롯해 한전공대 설립, 광주역 활성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서남해안 개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광주일보가 최근 기획 연재를 통해 이들 과제를 심층적으로 점검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광주·전남 시·군·구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심 공동화, 일자리 부족 등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남은 기간 정치 공방을 멈추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책 대결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느는데 외면하는 지자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의 안전시설이 부족해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는 뒷전인 채 운전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캠페인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초등학교·유치원·보육시설·특수학교 인근에 지정된 스쿨존은 모두 605곳이다. 이중 195개 학교가 안전시설 개선(보수)을 요청했다. 스쿨존은 아니고 어쩌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할 상황이지만 치료 전에 비해 몸이 가벼워지고 주변 지인들도 건강하게 변한 몸 상태에 놀랐다고 한다. 즉,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지만(어떤 경우는 인슐린을 맞고 있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당뇨 치료라는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당뇨 진단을 받은 84세 어르신의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대한 답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당뇨로 진단받으면, 본인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이 인슐린 주사든 약물 복용이든, 혹은 식이나 운동이든 꾸준히 혈당을 조절하면 당뇨병 관리는 물론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뇨병과 함께 즐거운 인생이다.

동안에 차량 열 대가 적발됐다. 단속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스쿨존의 안전시설 문제가 당분간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사실이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호소에도 광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가 올해 스쿨존 시설 보수 예산으로 책정한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하다. 광주시가 예산 타령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피해 시설 개선(보수)을 요청했다. 스쿨존은 총 478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92명이 다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59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554명이 다쳤다.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는 스쿨존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스쿨존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하루빨리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당뇨병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양 태 영 태영21병원 원장·내과 전문의

적이면 인슐린과 같은 주사보다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복용약으로, 그리고 약보다는 음식과 운동만으로 당뇨를 조절할 수 있길 바라고 묻는다. 물론 가능하다. 인슐린을 맞다가도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약물 복용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잘 되기도 하고, 더 꾸준히 노력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합병증 없이 당뇨를 관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 개선의 노력도 없이, 혹은 이미 췌장 손상으로 약물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약을 한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고 합병증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된다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 작용에 문제가 생겨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당뇨병이다. 즉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돼야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남게 돼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다. 오랜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협심증

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고, 이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혈당 조절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른 합병증인 투석과 같은 신장 질환과 망막병증 역시 미세혈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합병증이 혈관의 문제인 것이다. 그간 수많은 당뇨병 치료제가 개발되고,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24시간 내내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체중, 과로 등 생활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즉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하고 악화한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지혜롭게 바꾸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당뇨 약제를 잘 선택하고, 혈당을 정상범위로 유지하면 합병증 예방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즉 제대로 당뇨병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특효약은 있는지 등을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당뇨병에 좋은 혹은 당뇨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특별한 약과 음식

는 없다. 다만 나에게 알맞은 치료를 선택해 꾸준히 복용하면서 운동과 식이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당뇨 치료의 기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48세 외과 의사인데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과 함께 식이요법을 즐기고 하루 30분씩 꾸준한 운동으로 6개월 만에 뱃살이 2인치나 줄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면서 몸 상태가 한결 좋아졌다. 물론 아직 약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고 어쩌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할 상황이지만 치료 전에 비해 몸이 가벼워지고 주변 지인들도 건강하게 변한 몸 상태에 놀랐다고 한다. 즉,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지만(어떤 경우는 인슐린을 맞고 있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당뇨 치료라는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당뇨 진단을 받은 84세 어르신의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대한 답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당뇨로 진단받으면, 본인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이 인슐린 주사든 약물 복용이든, 혹은 식이나 운동이든 꾸준히 혈당을 조절하면 당뇨병 관리는 물론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뇨병과 함께 즐거운 인생이다.

기 고

광주 3·1만세운동은 광주 정신의 출발



홍 인 화 전 광주시의원·국제학 박사

이다. 올해가 광주 3·1만세운동 99주년이다. 내년이면 100주년인 셈이다. 수피아 여교를 다니면서 5·18을 경험하고, 청년 시절인 20대에 6월 항쟁의 한복판에서 투쟁했던 필자는 100년의 시간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본제국주의 아래서 민족 주권을 회복하는 몸부림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국내외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99년 전 3·1운동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다. 1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100주년에 재현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진다. 99년 전 광주의 3·1만세운동은, 1919년 2월 중순 양림동 지역의 개회된 근대정신과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감마리아 여사와 그 친지들인 남궁혁 목사, 김합창로 교수의 수피아여학교 선생, 그리고 동

경 유학생 정광호 등의 밀사를 통하여 어느 지역보다 국제 정서와 국·내외 독립운동 의지를 빨리 읽고 정확하게 만세운동 준비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서울보다 먼저 거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최홍중, 김철 등 중심 인물들이 서울로 갔다. 그런데 광주의 핵심 인물인 최홍중 선생이 서울 만세 시위로 구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5일 김철이 내려왔고, 우국 지사들과 조직을 추슬러 광주에서는 마침내 3월 10일 작은 장날에 도도하게 만세운동을 벌였다. 그 와중에 수피아 여학생 윤영숙(윤철녀)이 일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한쪽 팔이 잘렸음에도 다른 쪽 팔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농업학교 학생들도 합세했고, 또 주도 인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산면 일곡리와 생육리에 사는 이씨, 범씨, 노씨 등 만세 물결은 호남 각처로 전파되었다. 출옥 후 최홍중 목사는 우국지사들과 만나 ‘광주독립만세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각종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이런 광주만의 특징을 살려 내년부터 다양하게 지역을 넓혀서

재현 행사를 좀 더 광범위하게 했으면 한다. 일제 강점과 광주·호남 의병 역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광주공원, 독립만세운동의 현장이던 작은장터, 유희 진압이 이뤄진 경찰서 자리, 옛 일본군 주둔지 등을 기억하고 복원시켜야 한다. 비무장, 비폭력의 평화적인 시위였던 3·1만세운동은 상해 임시정부 등 해외 기관과 연락하면서 자각적인 항일운동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0년 뒤 1929년의 학생독립운동은 두 번째로 큰 민족운동이었다. 또 2차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제가 멸망할 때까지 즐거차게 항일 투쟁을 했다고 이는 전국적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됐다. 광주·호남인의 정의감과 애국심은 나라를 살리려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표출되었다.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의 마음을 평화운동으로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 광주의 3·1만세운동은 표표히 광주 정신의 출발이 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으로 이어졌고 이젠 평화를 꺼안은 채 통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無 等 鼓

광주의 근대 역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공공사업 가운데 하나가 학동 갱생지구 조성 사업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열악한 현실에서 지역 시민 사회가 나서 영세민들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과 일본 기업은 1920년대 광주천 정비에 나선다. 표면상으로는 자연재해를 예방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천변에 자리한 광주의 큰 장과 작은 장을 철거하는 등 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개발로 빈민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당시 빈민은 농촌에서의 착취와 억압을 못 이겨 도시로 쫓겨 온 뒤 천변에 움집을 짓고 집단으로 거주했다. 1930년 광주천 하류 정비로 아무런 대책 없이 500여 호의 빈민 주택이 강제 철거돼 사회 문제가 됐는데, 일제는 1936년 광주천 상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려 했다. 이때 광주 YMCA 창립자인 오방 최홍중 목사가 나섰다. 1969년 잡지 ‘새전남’ 7월호에 연재된 ‘광주 60년사’에는 “최 목사가 엄동설한에 쫓겨날 위기에

있는 영세민을 위해 침식을 잊고 동분서주했다”며 “송진유를 통해 광주를 방문한 우가키 총독과 담판에 나서 갱생지구 조성을 약속받았다”고 적고 있다. 광주부가 3만 원의 기체를 내 8680평의 하천 매립지에 조성한 것이 바로 학동8거리(지금은 LH아파트가 들어섰다) 갱생지구다. 지구 한가운데 공동우물을 두고 8개의 골목길을 만들어 주택을 배치했으며, 이를 분양해 재원을 충당하려 했다. 문제는 빈민들의 경우 작은 장을 철거하는 등 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개발로 빈민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당시 빈민은 농촌에서의 착취와 억압을 못 이겨 도시로 쫓겨 온 뒤 천변에 움집을 짓고 집단으로 거주했다. 1930년 광주천 하류 정비로 아무런 대책 없이 500여 호의 빈민 주택이 강제 철거돼 사회 문제가 됐는데, 일제는 1936년 광주천 상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려 했다. 이때 광주 YMCA 창립자인 오방 최홍중 목사가 나섰다. 1969년 잡지 ‘새전남’ 7월호에 연재된 ‘광주 60년사’에는 “최 목사가 엄동설한에 쫓겨날 위기에

학동 갱생지구

일반 분양가의 3분의 1로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에 지역 시민 사회는 다시 조선총독부가 광주천 정비와 수도관 설치 등 공공사업에 이들 빈민들을 고용하게 하고, 노임의 2할을 강제 저축하는 안을 제시해 관철시켰다. 지금 문제인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선형 모델이라고 해도 될 듯하다. 최 목사 등이 빈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전체를 추동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역 시민 사회도 그 역할을 고민해 보게 하는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d@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지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